

## 체류 외국인의 한국생활 - 2022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정재호  
통계청 고용통계과 주무관  
dearjho03@korea.kr

통계청과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체류 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이 글 전반부에서는 2023년 본조사에서부터 적용 중인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의 조사 주기 및 항목 등 개선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그다음에는 조사 부문 중 “한국생활” 분야의 2022년도 공표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생활 만족도, 어려움, 여가 생활, 차별 경험 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 활용과 관련한 제언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 1.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와 조사항목

### “항목별로 상이한 조사주기를 2년으로 통일하여 자료의 활용성 제고”

증가 추세인 이민자(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체류 관리와 이들의 사회통합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법무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는 이민자 정책과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조사주기 및 조사항목을 개선하였다. 이민자체류 실태및고용조사의 조사항목은 모든 표본(외국인 2만 명, 귀화허가자 5,000명)을 조사하는 공통항목과 특정 체류자격만을 조사하는 특성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공통항목 중 기본항목, 고용과 체류사항 등은 매년, 체류실태 관련 항목은 2년 주기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일부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항목은 3년 주기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체자료가 제공되려면 최장 6년이 필요하였다.

2023년부터는 고용과 관련성이 높은 순환항목과 특성항목은 홀수년, 체류와 관련성이 높은 순환항목과 특성항목은 짝수년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자료의 산출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어 통계자료의 정책 활용성과 자료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표 1]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조사주기 개선

		종전			개선		
		홀수 연도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짝수 연도
공 통 항 목	고정 (매년)	• 기본항목		• 고용 I	• 기본항목		• 고용 I
				• 체류사항	• 기본항목		• 체류사항
					• 한국어 능력		
	순환 (2년)	• 고용 II	• 교육	• 한국어 능력 • 보건 및 정보화 • 한국생활	• 고용 II	• 교육	• 보건 • 한국생활 • 자녀교육 • 주거 및 생활환경
		• 소득과 소비			• 소득과 소비		
		• 자녀교육			• 구직경험		
		• 주거 및 생활환경					
	특성항목 (3년)	• 비전문취업 • 유학생	• 방문취업/ 재외동포	• 영주/귀화허가자	• 비전문취업 • 유학생		• 영주/귀화허가자 • 재외동포

또한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는 통계의 시의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통계 수요를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개선하였다(표 2). 개선(안)이 반영된 조사항목의 총수는 홀수년의 경우 소분류가 169개, 짝수년의 경우 소분류가 178개이다. 구체적으로 표본에 따라 홀수년에는 최소 132개 항목에서 최대 151개 항목이 조사되고, 짝수년에는 최소 126개 항목에서 최대 164개 항목이 조사된다.

[표 2]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조사항목 개선 총괄표

(단위: 개)

구분			홀수년			짝수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합계			90	133	169	99	140	178
공통항목			68	102	132	61	94	126
고정 (매년)		소개	44	67	92	44	67	92
		기본사항	13	25	36	13	25	36
		고용 I	21	24	30	21	24	30
		한국어 능력	4	6	14	4	6	14
		체류사항	6	12	12	6	12	12
순환 (홀수)		소개	24	35	40			
		고용 II	16	19	19			
		구직경험	2	2	2			
		교육	2	7	7			
순환 (짝수)		소득과 소비	4	7	12			
		소개				17	27	34
		보건				2	3	3
		한국생활				11	15	22
특성항목		주거 및 생활환경				2	3	3
		자녀교육				2	6	6
		특성항목	22	31	37	38	46	52
순환 (홀수)		비전문취업	11	13	18			
		유학생	11	18	19			
순환 (짝수)		재외동포				8	14	14
		영주·귀화허가자				30	32	38

다음으로 2022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한국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의 한국생활 항목은 한국생활에서의 분야별 만족도, 어려운 사항, 여가 활용, 차별대우 경험 등 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얼마나 잘 정착하여 생활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생활 부문이 조사항목에 포함된 해는 2018년, 2020년, 2022년으로 지금까지 조사가 세 차례 이루어졌다. 세 차례의 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미 편입된 귀화허가자는 제외하고, 외국인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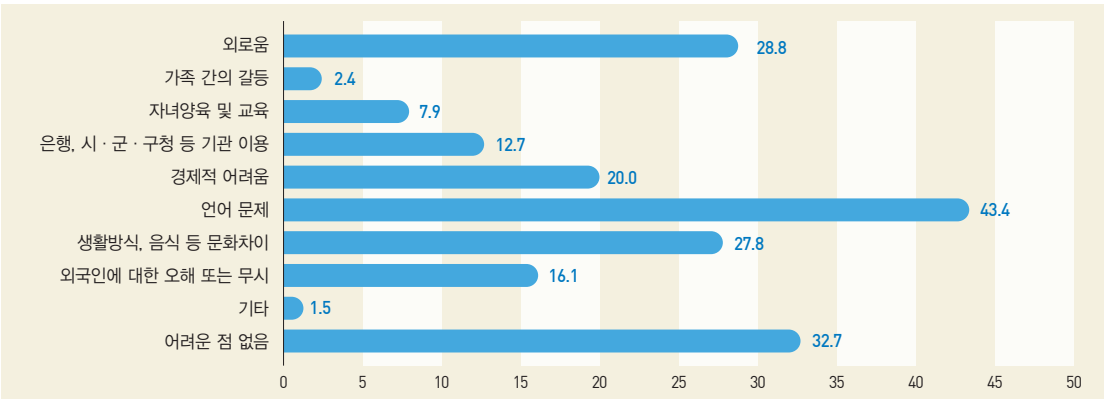
II.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외국인은 주로 언어 문제와 외로움으로 인해 한국생활을 어려워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복수응답 기준)은 한국생활에서 언어(43.4%), 외로움(28.8%), 생활방식·음식 등 문화차이(27.8%), 경제적 어려움(20.0%)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반면 가족 간의 갈등(2.4%), 자녀양육 및 교육(7.9%)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 중에서 어려움 없음(32.7%)도 응답률이 높았다.

[그림 1]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사항(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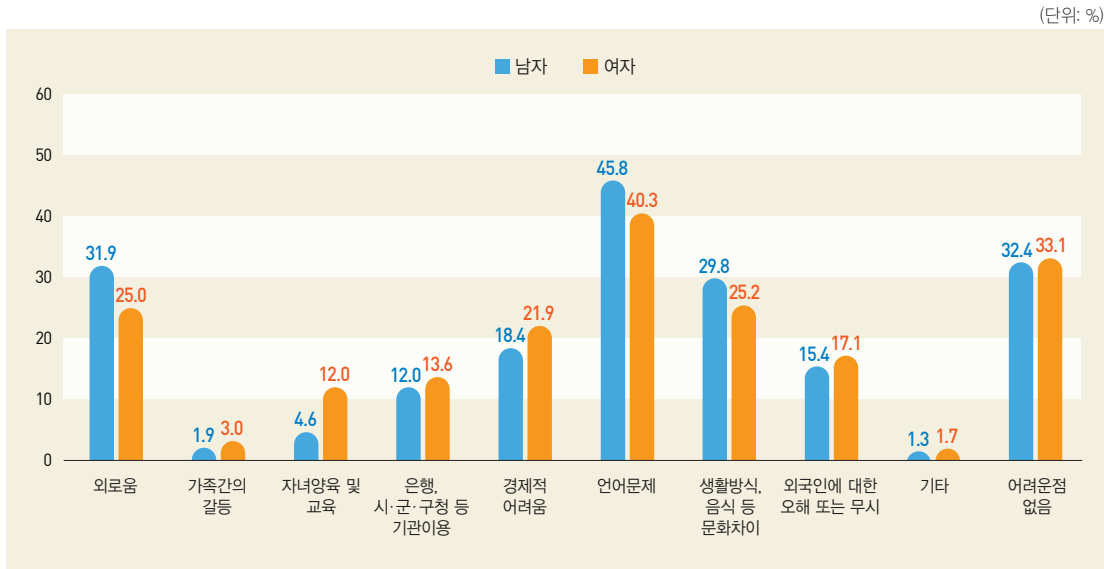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운 사항을 성별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외로움(31.9%), 언어 문제(45.8%), 생활방식·음식 등 문화차이(29.8%)에서 여성에 비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12.0%), 경제적 어려움(21.9%), 외국인에 대한 오해 또는 무시(17.1%) 면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었다.

1) 그림과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된 것으로 전체 수치와 그림 또는 통계표 내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2]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사항(복수응답\_성별)



자료: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국인보다 외국인(본국인+본국 이외)이 더 많았다(표 3).

외국인이 [표 3]의 각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여 평균 6명 내외로 나타났다. 이 중 심리적(슬프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인 경우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인 경우는 5.8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3] 상황별 한국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및 평균 인원수

	있음	한국인	본국인	기타 외국인	없음
		평균인원	평균인원	평균인원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80.8	1.9	2.3	2.3	19.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61.2	1.7	2.0	2.1	38.8
슬프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81.2	2.1	2.4	2.4	18.8

주: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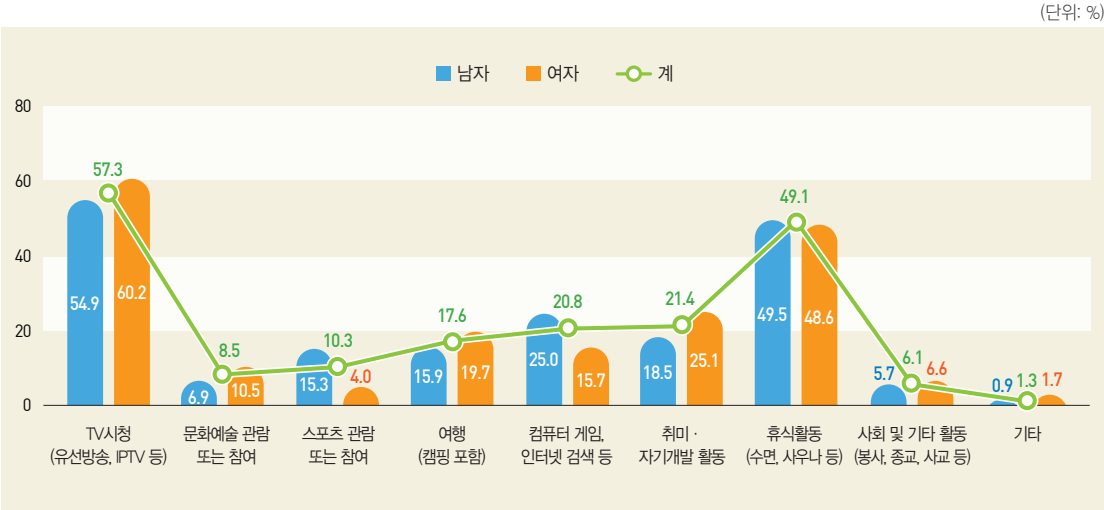
III. 외국인의 여가 생활

“외국인은 주로 TV 시청과 휴식 활동으로 여가를 활용”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여가 활동(복수 응답)으로 유선방송, IPTV 등 TV 시청(57.3%)과 수면, 사우나 등 휴식 활동(49.1%)이 많았고, 봉사, 종교, 사교 등 사회·기타 활동(6.1%), 문화 예술 관람 또는 참여(8.5%)와 스포츠 관람 및 참여(10.3%)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그림 3).

구체적으로 남성은 휴식 활동(수면, 사우나 등),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스포츠 관람 및 참여 등으로 여성에 비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여성은 TV 시청(유선방송, IPTV 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등으로 많은 시간을 활용하였다(그림 3).

[그림 3] 여가 활동 형태(복수응답)



자료: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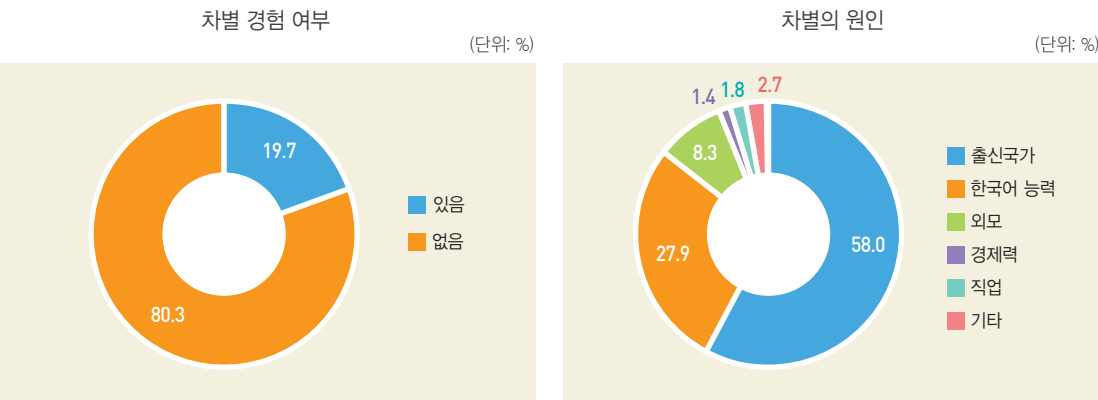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

IV. 외국인의 차별에 대한 인식

“외국인은 주로 출신국가와 한국어 능력을 차별의 원인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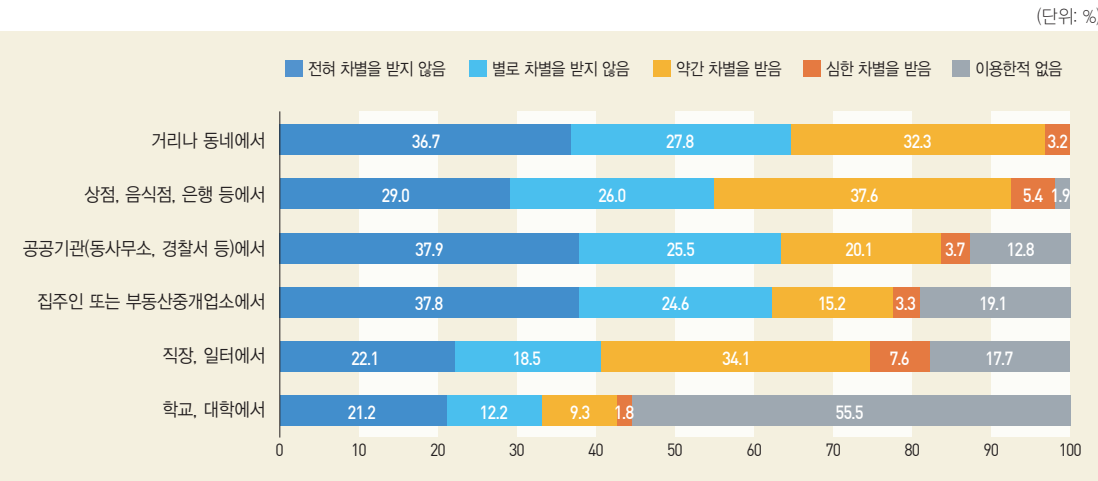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7%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주된 원인은 출신국가(58.0%), 한국어 능력(27.9%), 외모(8.3%)의 순으로 높았다(그림 4).

[그림 4] 차별 경험 및 원인



자료: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그림 5] 차별을 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



자료: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외국인은 이용하는 장소나 서비스 중 상점·음식점·은행 등(43.0%)과 직장·일터(41.7%)에서 차별\*을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교·대학(11.1%)에서 낮았다(그림5). \* 심한차별 + 약간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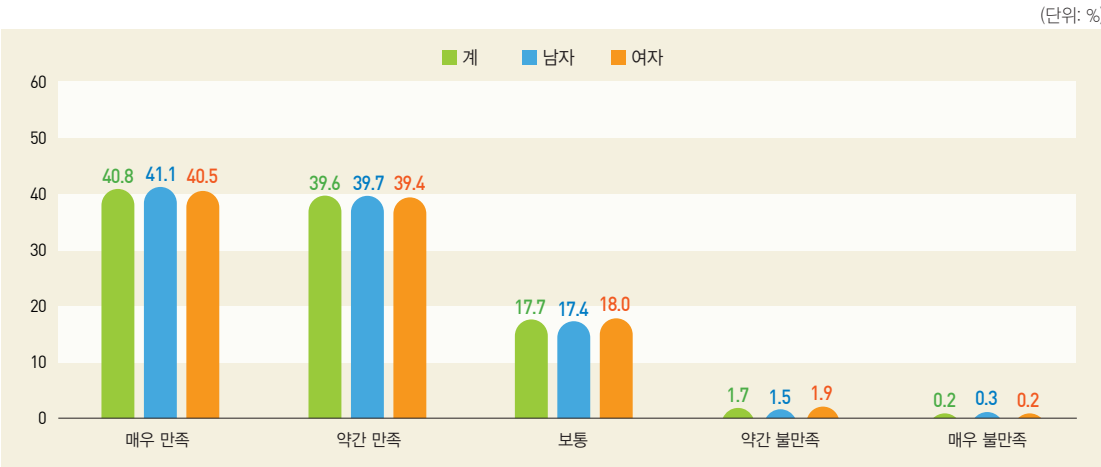
V. 외국인의 한국생활 만족도

“외국인은 한국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남녀 합계 기준 만족\*(80.4%), 보통(17.7%), 불만족\*\*(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 중에서 매우 만족이 40.8%, 약간 만족이 39.6%로 매우 만족이 약간 만족보다 근소하게 높았다(그림 6).

\*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그림 6] 외국인의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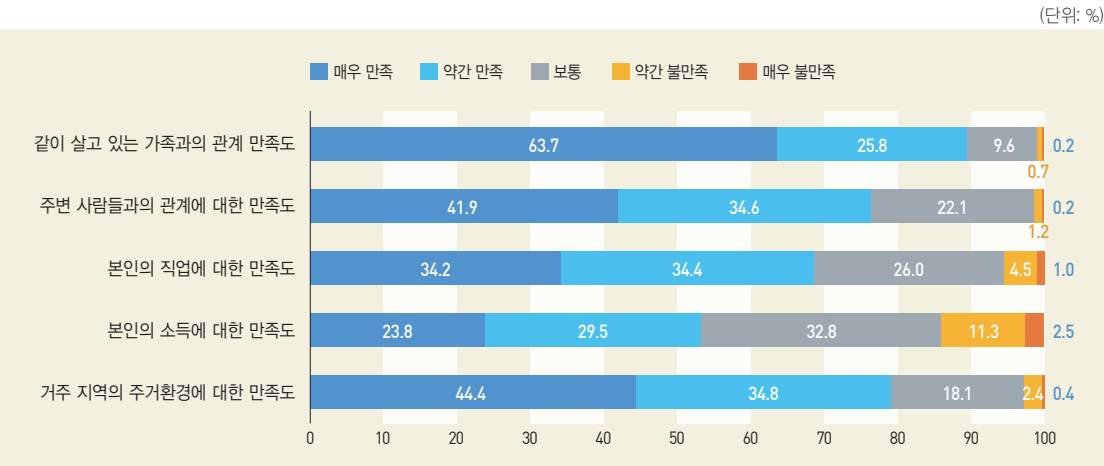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외국인의 경우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8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이 79.2%로 높았다. 다만 본인의 소득에 대한 만족은 5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7). \*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그림 7] 외국인의 부문별 만족도



자료: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한국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외국인의 체류자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체류자격에서 만족\*이 가장 높았다(표 4). 세부적으로 비전문취업(84.7%), 전문인력(83.4%), 결혼이민(82.3%)의 순으로 만족이 높았다. 매우 만족은 비전문취업(47.4%)에서 가장 높았으며, 방문취업(35.8%)에서 가장 낮았다. 방문취업, 유학생, 재외동포에서는 약간 만족이 매우 만족보다 높았다. \*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불만족\*은 방문취업(2.6%), 전문인력(2.4%)에서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표 4]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체류자격)

(단위: %)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계	(100)	(80.4)	(40.8)	(39.6)	(17.7)	(1.9)	(1.7)	(0.2)
비전문취업	(100)	(84.7)	(47.4)	(37.3)	(14.4)	(0.9)	(0.9)	(0.0)
방문취업	(100)	(76.0)	(35.8)	(40.2)	(21.5)	(2.6)	(2.3)	(0.3)
전문인력	(100)	(83.4)	(42.2)	(41.2)	(13.9)	(2.4)	(1.9)	(0.5)
유학생	(100)	(79.9)	(38.8)	(41.1)	(18.3)	(1.9)	(1.5)	(0.4)
재외동포	(100)	(79.5)	(38.2)	(41.3)	(18.6)	(1.9)	(1.7)	(0.2)
영주	(100)	(79.7)	(40.4)	(39.3)	(18.4)	(1.8)	(1.7)	(0.1)
결혼이민	(100)	(82.3)	(43.6)	(38.7)	(15.9)	(1.7)	(1.5)	(0.2)
기타	(100)	(78.7)	(41.5)	(37.2)	(18.7)	(2.7)	(2.3)	(0.4)

주: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비전문취업에서 가장 낮았다. 이 중 매우 불만족은 전체 체류자격에서 0.5% 이하로 나타났다. 보통은 방문취업에서 21.5%로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에서 13.9%로 가장 낮았다.

\*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VI.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제언

“고용 관련 항목뿐 아니라 체류 관련 항목의 다양한 활용 기대”

증가하는 이민자에 대응한 정책 발굴과 미래 예측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외국인 관련 통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외국인과 관련한 여러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표 5). 그중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는 2만 5,000명의 대규모 표본조사, 1년 단위 자료 공표, 다양한 고용 및 체류 관련 항목 포함 등의 장점이 있는 매우 유용한 조사이다.

[표 5] 이민자 관련 통계 작성 현황 비교

구분	이민자체류실태및 고용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출입국자및 체류외국인통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작성기관	통계청·법무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조사단위	개인	가구	개인	개인
조사대상	외국인 및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 (만 15세 이상)	결혼이민자, 귀화자 (다문화 가족지원법상 다문화대상자)와 해당 가구 및 가구원	출입국과 관련된 내·외국인	거주외국인 (90일 이상 지자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조사주기	1년	3년	매월	1년
표본규모	전국 2만 5,000명	전국 1만 6,000가구 내외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사(작성) 항목	기본사항, 고용, 한국생활, 한국어 능력, 자녀교육, 소득과 소비, 체류자격별 특성항목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 가족의 경제상태, 자녀양육·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 가족문제, 생활양식, 다문화가족지원관련 서비스 수요 등	외국인 출입국자 현황, 체류외국인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국적처리 현황 등	외국인주민 현황 (성별, 국적별, 유형별, 연령별, 지역별)

주: 통계정책관리시스템(narastat.kr/pms/index.do).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는 고용 관련 항목 외에도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등 사회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경제 관련 주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유입된 이민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영향, 이민자의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사회 관련 주제에 대해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느끼는 차별의 주된 요인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항목의 조사 부문인 한국어 능력의 한국어 실력 항목과 연계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취득의 수준에 따라 차별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본인 소득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도 공통항목의 고용 I 부문에서 조사된 월평균 급여 수준 등 항목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다양한 관련 항목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면 더욱 매력적인 분석모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통합시스템(MDIS)을 통해 이민자 체류실태및고용조사의 집계 결과와 마이크로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선된 조사표에 따라 이루어진 2023년 조사 결과는 2023년 12월에 공표되고, 마이크로데이터도 2024년 상반기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통계청과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작성하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가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과 사회과학 연구 등에 활용되어 우리 사회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 참고문헌

- 통계청. (2022). 「2022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고용·보건 및 정보화·한국생활·한국어 능력·체류사항·영주(F-5) 및 귀화허가자」. (12월 20일). 보도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index/index.do](https://kosis.kr/index/index.do)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mdis.kostat.go.kr/index.do](https://mdis.kostat.go.kr/index.do)
-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 [narastat.kr/pms/index.do](https://narastat.kr/pms/index.do)

###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

